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복초등학교 교장

변화의 시대에 앞서가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의 시대다. 개인은 물론 교회도 국가도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가지게 된다.

첫째는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며, 둘째는 지방시대, local시대에서 세계화, international 시대로의 변화다.

셋째는 기술과 자본이 중요한 3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창조성과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로의 변화다.

넷째는 북두칠성 시대에서 은하수 시대로의 변화다. 첫 번째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는 이미 상식이

되었으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체질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시대는 일본인들에게 적합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한국인들에게 적합하다. 일본인들은 집단 의식이 강하고 순종적인데 비하여 우리 한국인들은 개성이 강하고 속도와 변화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야흐로 디지털 기질인 한국인들의 시대 온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여 제때에 변화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되고 뒤처지니 나 오자가 되고 만다.

두 번째 변화가 지방 시대에서 세계화로의 변화다. 세계화의 상징적인 사건은 코로나 19 중국 폐렴이다. 지난 날 지방 시대에는 전염병이 생겨서도 그 지방으로 멈추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다르다. 코로나 별레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자유롭게 다니기에 삼시간에 세계적 전염병이 되고 말았다. 세계화의 모범을 코로나 19가 보여 준 셈이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모으는 인사들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조선이 패망할 때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기 십상이다.

1세기 전 문명이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변화하던 시대에 우리 겨레는 적응치 못하였기에 일본의 속국이 되는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다시 기회가 도래하였다. 산업 시대에서 지식정보 시대로 변화하는 문명의 전환점에 이르렀다. 이번에도 적응치 못하면 겨레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는 기술과 자본이 중요한 3차 산업 혁명 시대에서 창조성과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로의 변화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본과 기술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창조성과 상상력이 중심이 된다. 자

원이 부족한 우리 처지에서는 천운이 도래한 것이다. 창조성과 상상력이면 우리들에게는 승산이 있다.

그에 걸맞는 교육과 문화를 일으키면 민족흥부의 기회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기에 정치 교육 문화는 물론이려니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답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관민이 힘을 합하여 경제면에서 세계 10위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한계이다. 정치 지도력이 지금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된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력으로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 지도자들을 탓하고만 있을 처지가 아니다. 대안(代案)을 찾아 지식정보 혁명 시대에의 변화를 주도하여 나갈 수 있는 국가 지도력을 확보하여 나가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살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변화에 적응하는 경우는 변명을 이룰 것이요, 그렇

지 못할 경우는 쇠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4번째인 북두칠성 시대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모두가 줄을 서서 달리는 시대다. 그러면 당연히 1등에서 꼴찌까지 등급이 매겨지기 마련이다.

1등이 있는가 하면 꼴찌도 있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은하수 시대에는 제각기 자기 방향으로 달리기에 등수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제각기 자기 방향으로 달리기에 100명이 달리면 1등이 100명이 나오게 된다.

이른바 개성이 존중되고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중요하게 된다. 지난 3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자본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하고 성적순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고 각자의 창조력 내지 창의력이 중요하게 된다. 북두칠성 시대에는 북두칠성이란 고정된 목표를 향하여 달리던 시대였다. 그러나 은하수 시대에는 고정된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

제각기 자신의 개성을 따라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기 방향으로 달리던 시대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빙자 사기,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기범죄다.

사기범죄는 전자통신금융사기, 사이버사기, 생활사기 등 여러 가지 변종 수법으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알고 있는 전자통신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대출 빙자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 빙자 사기는 피해 유형만 제

대로 알고 있어도 범죄를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나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한 후 피해자가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유형이다. 둘째, 저금리 대출금이 승인 났으나 신용등급이 낮다. 통장 잔액이 얼마 이상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입금하라는 유형이다. 이 역시 입금 후 연락이 두절 된다. 셋째, 공증료 요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채무 불이행시를 대비해 공증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입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유형이다. 넷

째, 카드와 통장 사본 등의 요구이다. 통장 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 되니 통장과 카드를 주면 통장 거래내역을 높여서 대출 가능하다고 유도하여 통장과 카드를 수령 받고 연락 두절되는 유형이다. 다섯째,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보내는 주소에 접속해 앱을 받아 개인정보를 입력 후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입금 받고 연락이 두절되는 유형이다.

모르는 사람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요구, 통

장 사본과 카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대출 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필자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경험이 있지만 피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사기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하고 의심할 때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운성/나주경찰서 수사과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legal aid, and consumer protection.

Advertisement for Honam Shinmun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